

다자이오사무옛집터

다자이 오사무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후나바시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1935년 7월, 26세의 다자이 오사무는 히가시카쓰시카군 후나바시초 이쓰카이치 혼주쿠 1928번지(현재의 미야모토 1초메 12-9)의 신축 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다자이는 대학에 낙제해 자살미수 소동을 일으켰으며, 연이어 4월에는 맹장염이 악화되어 복막염을 앓았고, 그 진통제 파비날에 의한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양을 위해 후나바시로 이주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구제 히로사키 고등학교 시절에 알게 된 아내 하쓰요도 함께 왔습니다. 요양을 위한 이사였지만 파비날 중독은 끊지 못하였고, 증상의 악화를 걱정한 가족이 이부세 마사지에게 설득을 부탁하여 1936년 10월에 도쿄의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후나바시에 거주하는 동안 “다스 게마이네”, “장님 이야기”, “허구의 봄” 등의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후에 저서 “십오년간”에서 다자이가 ‘나는 지바 후나바시초의 집에 가장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빈번히 주거를 바꾸었던 그에게 후나바시는 특별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